

'25.1월, 홈택스 확 바뀐다! 나한테 깔 맞춘 개인화 서비스, 신고서 대신 작성, 연말정산 실수 원천 차단

- 국세청 (청장 강민수)은 「홈택스 고도화 사업」을 추진하여 신고·납부 편의성을 넘어 납세자가 알기 쉽게, 실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개편 하였습니다.

① 부가가치세 전자신고, 똑똑해진 홈택스가 신고서 대신 작성

- 납세자가 로그인하면 신고시기와 과세유형 (간이·일반)에 따라 20개가 넘는 부가가치세 신고화면 중 꼭 맞는 화면이 자동으로 나오고,
- 기존의 복잡한 신고서식 기반의 화면 대신 모든 항목이 한눈에 들어 오는 단순한 디자인으로 새롭게 단장되어 화면에 나타납니다. **동영상1**



사업자번호 101-22-34567 사업자명 테스트일반과세사업자 신고대상 일반과세자 신고구분 2024년 1기 확정 신고서 기한후신고 과세기간 2024.01.01. ~ 2024.06.30.

테스트일반과세사업자의 납부할 세액은 452,666원 입니다.

환급계좌정보 -선택- **이대로 신고하기**

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
신고 전에 반드시 금액을 확인하세요.

매출세액 (단위: 원)	금액	세액
세금계산서 발급분(과세, 영세율)	4,000,000	400,000
- 매출적립세금계산서합계표	4,000,000	400,000
신용카드·현금영수증 발행분	1,000,000	100,000
-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계표	1,000,000	100,000
과세표준명세	5,000,000	

매입세액 (단위: 원)	금액	세액
세금계산서 발급분(과세, 영세율)	1,000,000	100,000
- 매입적립세금계산서합계표	1,000,000	100,000
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	0	0
그 밖의 공제매입세액	0	0
-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	0	0
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	526,660	52,666

- 신용카드·현금영수증·전자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홈택스가 자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줍니다. (1)
- 매출이나 공제항목을 수정 (필요 없으면 그대로 신고)하면 부가가치세가 자동 재계산되어 향후 납부할 세금을 미리 계획해 볼 수도 있습니다.



“ 테스트에 참여해 보니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고, 제출 서류까지 안내되어 있어서 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. ” [세종시 카페 운영 27세 윤○○]

② 실수를 막아주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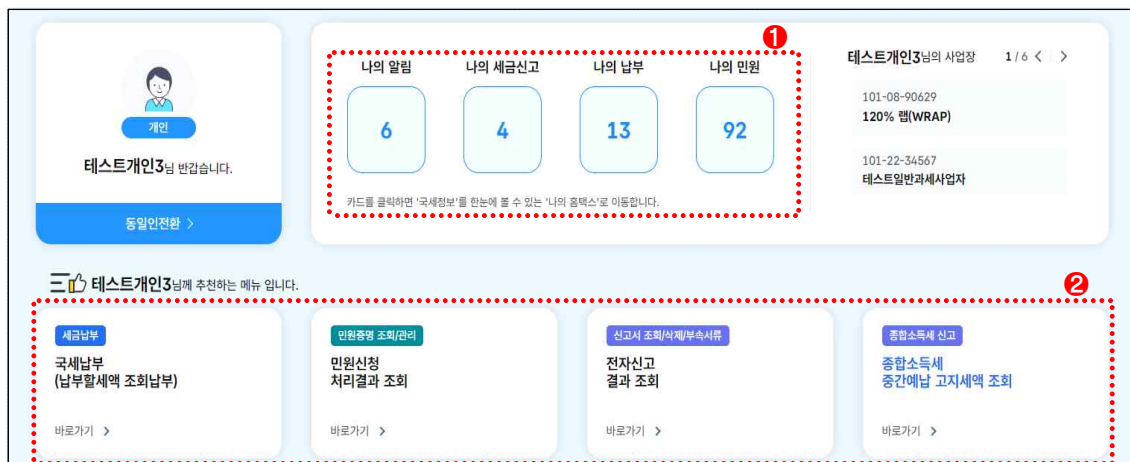
- 소득요건*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는 등 과도한 연말정산 공제시 최대 40% 가산세 (일반 초과환급 10%, 부정 초과환급 40%)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.

* 종합소득 금액 ≤ 100만원 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)

- 종전에는 이러한 과다공제가 의도하지 않은 실수에서 비롯될 때가 있었는데, 연말정산 서비스가 더 똑똑해져 납세자 실수를 예방합니다. **동영상2**
- '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이미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과 '23.12.31.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.
- 또한, 실수하기 쉬운 공제요건을 팝업으로 보여주어 자발적 성실 납세를 유도합니다.

③ 개인 맞춤형 포털...그래도 궁금하다면 '지능형 검색' 이나 'AI전화상담'

- 홈택스는 4,066개 화면, 800개 메뉴로 구성된 종합 서비스로, 처음 사용하는 납세자는 원하는 업무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.
- 이를 해소하기 위해, 홈택스를 납세자에게 유형별·시기별로 각자 필요한 내용을 보여주는 차별화된 개인화 포털로 개편합니다. **동영상3**



- 각종 신고안내 등 국세청 알림을 한 번에 확인하고, 신고·민원 등 진행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. (1)
- 사용자별 이용 패턴을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맞춤형 추천메뉴도 제공합니다. (2)
- 또한, 납세자가 정확한 세법용어를 몰라도 원하는 서비스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지능형 검색을 도입합니다. 동영상4
- 예를 들면 배달라이더로 일하는 납세자가 ‘인적용역 소득자’라는 정확한 용어를 몰라도 ‘배달라이더’로 검색하면
 - AI가 납세자 유형과 세무일정 등 맥락을 파악하여 ‘인적용역 소득자 기한 후 신고’ 화면을 검색 결과로 맨 앞에 보여줍니다.



“ 테스트 중에 환급 받을 세금이 없는지 궁금해 ‘배달라이더’로 검색했는데, 관련 환급 화면을 바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. ” [마포구 배달라이더 42세 김OO]

- 그래도 세법이나 홈택스 사용법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상담센터 (126)로 전화하면 직원 상담사나 AI상담사가 친절하게 안내해줍니다.
- AI상담사(AI전화상담)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시범 도입하였는데, 내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합니다.

④ 민간 플랫폼 보다 편리한 환급 서비스 3월 개통 예정

- 어려운 민생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국세청이 특단의 조치를 준비합니다.
- '25년 3월, 「홈택스 고도화 사업」의 일환으로 민간플랫폼 보다 더 편리하고 정확한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(가칭 ‘스마트 환급’)를 선보입니다.
- 납세자 유형별로 최대 5년 치 소득금액과 환급세액을 보여주고, 원터치 간편 신고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수료 부담 없이 안전하게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.

⑥ 홈택스 고도화 추진과정 및 개통계획

- '24년 초 홈택스 자문단 (사업자·세무사·장애인 등 280명)을 구성해 4천개가 넘는 홈택스 화면을 사용자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하였습니다.
 -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용자 불편사항·개편의견 등을 먼저 청취하고, 화면 설계과정과 테스트 과정에 홈택스 자문단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.
 - 특히 자문단에는 장애인·고령자 등을 포함하여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세심하게 배려하였습니다.
- 개편된 홈택스 서비스는 '25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, 연말정산을 시작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등 세금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 세목별로 개통됩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정보화관리관 정보화기획담당관	책임자	과 장 전지현 (044-204-2401)
		담당자	서기관 김범철 (044-204-2402)
<협조>	정보화관리관 홈택스1담당관	책임자	과 장 이주연 (044-204-2501)
		담당자	사무관 윤소영 (044-204-2502)
<협조>	정보화관리관 홈택스2담당관	책임자	과 장 손유승 (044-204-2551)
		담당자	사무관 이정화 (044-204-2552)
<협조>	개인납세국 소득세과	책임자	과 장 최원봉 (044-204-3241)
		담당자	사무관 이한솔 (044-204-3252)
<협조>	법인납세국 원천세과	책임자	과 장 정현미 (044-204-3341)
		담당자	서기관 전정영 (044-204-3342)